

# 정교회주보

### 정교회 한국대교구



성 에라즈모스 주교순교자

제 1차 세계공의회 참석 교부들 주일 성 에르미아스 순교자

제 6조, 조과복음 10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에서

- 제 1.2.3 응송 / 사도경 79~80
- 승천 축일 찬양송 / 오순절 예식서 77
- 승천 축일 입당송 / 오순절 예식서 79
- 제 6조 부활 찬양송 / 82, A214
- 성 교부들 찬양송 / 오순절 예식서 82
- 성당 찬양송
- 승천 축일 시기송 / 오순절 예식서 80
- 사도경 : 사도행전 20:16~18, 28~36 / 260, 봉독서 84
- 복음경 : 요한 17:1~13 / 105, B 29
- 승천 축일 성모송 / B 328
- 승천 축일 영성체송 / 오순절 예식서 81
- □우리가 참 빛을' 대신 '승천 축일 찬양송' / 오순절 예식서 77

# 성인들이 삶으로 전해주는 구원의 말씀 성 에라즈모스 주교순교자

교회는 성인들을 장식하기 위해서 항상 어울리는 형용사를 찾습니다. 구약의 욥을 만능경기자(많은 시련을 투쟁한자)라고도 부르는데, 그것은 그가 큰 시련들을 견뎌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서 6월 2일 축일로 기념하는 성 에라즈모스 주교순교자도 만능경기자(많은 시련을 투쟁한자)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이 왜, 의인들이 시련을 당하고, 성인들이 박해받을 때 약인들은 많은 경우 벌 받지 않느냐고 물어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의 머리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를 견책하시고 아들로 여기시는 자에게 매를 드신다."(히브리서12:6)라고 성서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느님께서 의인들에게 시련을 허락하시는 것이 교육적 특징이 있다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자녀에게 관심을 많이 가질수록 더욱 열정적으로 가르치는데, 거기에는 매들 드는 경우가 함께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리가 있다면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 ☞지난 주에 이어서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냉정할 것입니다. 혹시 냉정함 보다 더 심할 수도 있지만, 어느 누구도 구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바이러스입니다.

나의 행동은 당신의 삶에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의 한 측면을 바꿔야만 한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주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나는 당신들이 살고 있는 사회의 모든 경계들을 강조해서 당신들이 그 경계들을 제거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중단하기를 간청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온 마음을 쏟아 기울일 것은 다음의 단순한 것입니다.

#### 삶

당신과 당신의 아이들의 삶입니다.

그리고 삶을 보호하고, 포용하고, 나누기 위해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부모로부터, 조부모로부터, 자녀와 손주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여러분의 집에서 홀로 머물라는 것입니다. 포옹, 사람들과의 접촉과 대화, 악수, 친구들과 보내는 저녁시간, 중심가에서의 산책, 한 식당에서의 저녁식사, 야회공원에서 달리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



지 깨닫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미지에서 모든 것들을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만합니다.

당신들은 모두 동일합니다. 서로 차별하지 마십시오. 나는 당신들에게 당신들과 아주가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나는 당신이 알아채지 못한 가운데 아주 짧은 시간에수천 미터를 이동했습니다. 나는 지나가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당신들에게 보여준밀착감과 모든 일에 함께 한다는 느낌은 영원이 지속되어야만 합니다.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 삶을 살아가십시오. 걸으십시오. 깊게 호흡하십시오. 선행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선한 행동은 항상 이득과 함께 당신에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자연을 만끽하십시오.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아무것에도 의존하지 않게 만들 상황들을 만들고 그것으로 당신을 채우십시오. 당신이 축제를 시작할 때 나는 직전에 떠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기억하십시오. ... 내가 있었을 동안만 좋은 사람으로 있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안녕...

Danilo Calabrese

# 기본적 차이

이슬람교인과 그리스도인이 각자의 종교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모하메드와 예수 그리스도가 모두 예언자라는 것에 동 의하였다. 그렇다면 두 종교 사이에 차이는 어떤 것일까?

그리스도인은 그 차이를 이런 식으로 설명하였다:

"제가 길을 가다가 갈림길에 다다랐을 때, 죽은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을 만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제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누구에 게 물어볼까요?" "당연히 살아있는 사람이지요."라고 상대가 재빠르 게 대답하였다. 그러자 그리스도인이 다시 물어보았다. "그러면 살아 있는 그리스도 대신에 이미 죽은 모하메드에게 가보라고 하는 이유 는 무엇입니까?" 라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모든 종교의 창시자 사이에 있는 기본적 차이가 아닐까? 그리스도를 뺀 모두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가 죽었다. 하지만 그들 중 어느 누구도 다시 살아나지는 못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은 단지 사람일뿐 아니라 육신을 취하신 참 하느님이라는 것을 완전히 확신할 수 있게 해준 사건이었다. 그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위해 자기들의 모든 것을 포기할수 있었으며, 마침내 자신의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었다.

아타나시아



# 주보소식

#### 대교구

서울 성 니콜라스 주교좌 대성당에서는 지난 5월 26일 화요일 밤에 부활절 종례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암브로시오스 대주교와 로만 카프착 사제, 안토니오스 임종훈 사제, 요한 박인곤 보제의 집전으로 부활절 밤과 같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직은 코로나19로 한정적으로 제한된 신자분들이 참석하였고, 예배 후에는 부활달걀을 나누고, 간단한 저녁을 나누었습니다.

####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

≥ 성당 지붕과 주방 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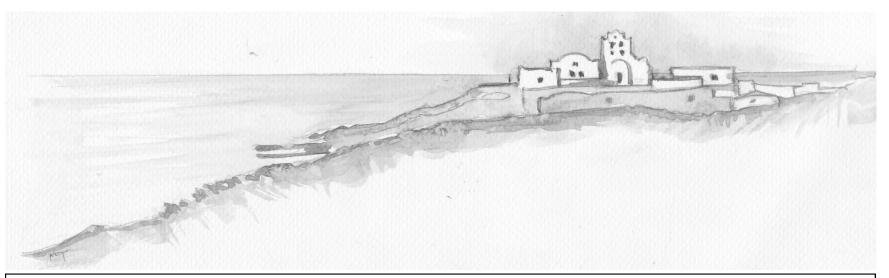
지난 4월 강풍으로 성 니콜라스 대성당의 지붕 한 부분의 동판부분 한쪽이 떨어져나가고, 기와가 내려앉는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매주 사랑의 오찬과 성서공부 등여러 행사를 함께 하는 지하 선교회관 천정에서 물이 떨어지는 원인이었던 1층 주방의 온수관이 파열된 것을 공사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아직 지하 선교회관 천정이 누수로 많이 파손이 되어 교체할 예정이고, 기숙사 건물도 수도관 노후로 아직 공사가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사들이 성당의 재정에 비례해 많은 지출이 필요합니다. 신자 분들의 많은 기도와 도움을

# 주간예식



6월 6일(토) 영혼토요일 오전 9시 - 축일조과 및 성찬예배, 추도식.

(우리 교회의 모든 선조들을 기억하는 추도식에 꼴리바를 준비하여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발행처 : 한국 대교구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 (02) 362-6371 / Fax (02) 365-2698 / www.orthodoxkorea.org